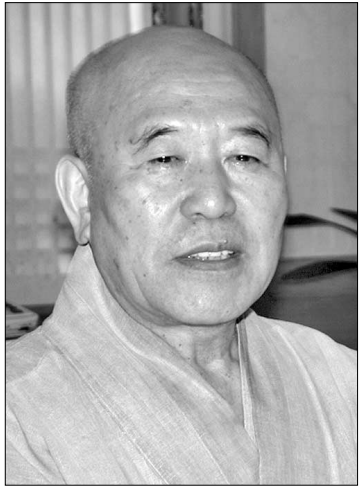


“불자 기르고 경전도 보급”



interview 몽골불교 재건 나선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6월 중 유치원 건립 시작 의료봉사팀도 파견 예정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한 몽골선수단을 후원하면서부터 결성된 (사)몽골불교교류협회는 4월 25일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후원의 밤’을 대구 인터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협회장 지성 스님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가동될 단계라며 향후 몽골불교 지원사업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비쳤다.

▲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몽골은 전통불교국가지만 70년간 공

산치하에 있으면서 사원이 불타고 2만여 승려가 학살당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또, 1992년 해방을 맞았지만 기독교가 들어와 극성을 부리는 통에 몽골의 문화와 전통신앙역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유치원이 몽골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몽골불교계는 2세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건립과 몽골경전 보급을 위한 인쇄소 건립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몽골불교진흥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800여명의 지역 불자들이 동참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1억5천만 원을 웃도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수용인원 50여명 규모의 유치원 건립에 소요되는 약 2억 원의 예산에는 못 미치지만 유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쁨은 될 것으로 봅니다.

▲ 행사에는 몽골스님들도 동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사 불교대학장 밤바자르 스님과 총무원 비서실장 예르망주 스님, 불교대학 교수 강호의 스님이 참석해 상호 지원약속을 맺었습니다. 스님들은 행사 이후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등을 순례하고 서울에서 몽골 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법회도 가졌습니다. 또, 불교유치원을 견학하고,

서울 연등축제에도 참석했는데, 우리불교의 전통문화를 많이 보고 배웠을 겁니다. ▲ 몽골불교재건은 언제부터 진행되니까?
-6월 중에 유치원 건립공사를 시작하고, 이를 기념해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영남대 의대 불교회와 함께 몽골의료봉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몽골건국 80주년 한몽수교 15주년을 맞는 해여서 의미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유치원은 한국 건축설계사의 도움으로 몽골실정에 맞춰 우리나라의 선진기술을 접목시켜 건립하고, 우리의 선진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접목시켜 최상의 유아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성 스님은 “주지 임기동안 잘 따라준 지역불자들이 고맙다”며 “후임 주지스님이 젊고 능력이 있어 동화사가 대구는 물론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성 스님은 주지 소임 4년간 백고죄법회, 화엄은강, 답선법회, 계율수행대법회 등 매년 대형 법회를 개최해 동화사의 위상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지선 기자

6대종교 지도자 함께 ‘3배’

부산 여여정사서 ‘...작은 음악회’



‘공동선 실천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지도회 및 작은 음악회가 5월 2일 여여선원(주지 정여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협의회 회장 정여 스님과 윤천 상당 조종길 주임신부 성균관부산시유도회 신준성 원장 원불교 남궁원 교무 등 6개 종교 지도자와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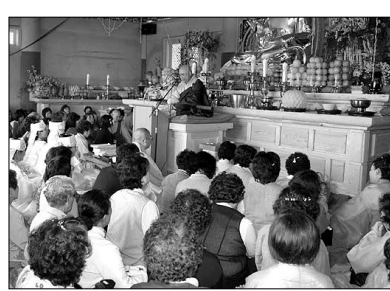
제1부 지도회에 이어 펼쳐진 작은 음악회는 정여 스님이 직접 쓴 축시 ‘평화 그리고 자비’ 낭송으로 시작, 불자들의 합창과 원불교 교무 중창단 공연, 플루트 연주 등으로 진행했다.

감미로운 음악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종교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손에 손을 잡고 ‘만남’과 ‘사랑으로’를 합창했다(사진).

종교지도자들은 여여선원 법당에서 다 함께 3배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정여스님은 “차와 시와 음악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비와 평화”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영축사 약사여래불 봉안



노인복지관들 어버이날 행사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과 마산 금강노인복지관(관장 광인철)은 5월 3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복추진 100%’와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를 개최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도구노인복지관의 경로잔치에는 지역 어르신 600여명이 함께 했다. 금강노인복지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8일 금강노인노인들이 행사를 경남 수목원으로 다녀를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대구경북 장애인 축구대회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훈)은 6월 2일 경기 대한광복공원 잔디구장에서 제4회 대구 경북지역 정신지체 장애인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4번째 개최하는 대회다.

올해는 구미, 경북, 경주 등 대구경북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구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상주보호작업센터, 대구 동시은재활원 등에서 400여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기관별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054)533-6415 배지선 기자

해인사 3년간 가사불사 봉행

법보종황 해인사주지 현웅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하는 ‘가사불사’를 5월 22일부터 3년간 봉행한다. 가사불사는 총무원으로부터 위임받아 비구니회 임원회의에서 결정 합의된 가사전을 사용하고, 색상과 삼보문은 의제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지선 기자



한 것 끼를 발산하며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희망의 무대를 선물했다. 석문사가 준비한 떡 등의 공양물에 대한 답례로 재소자들이 직접 만든 연등과 모형 탑 등을 공연단에 전달할 때는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해철 대전 총복지사장

송광사 사천왕상·복장유물 불갑사 불복장물 등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조계종림 송광사 사천왕상을 보물 제1467호로 사천왕상 복장유물(보물 제1468호), 영광 불갑사 불복장전적(보물 제1470호) 각각 지정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송광사 천왕문에 자리한 소조 사천왕상은 총 4구로 1628년(인조 6년) 조성됐다. 사천왕상 복장유물은 지난해 해례 보수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로 전적 12종 14책, 인본다라니 383장, 후령통 등으로 고려말·

배지선 기자

제소자 지역불자 함께 ‘즐거운 하루’

청주교도소 교회위문공연

본사 대전총복지사(사장 해철)와 충북 청원 석문사(주지 해전)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공동 주최한 청주교도소 교회 위문 공연

은이 5월 2일 제소자 400여명과 지역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했다(사진).

총복 종교인 사랑의 릴레이 행사로 지정된 이날 공연에서는 지지 홍보단 가수와 불교계 합창단, 스포츠댄스 공연단 등이

하기척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글이든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삼담론의 및 책자 신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이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전생)은 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